

광주 이전 기업들 “오길 잘했다”

땅값 싸고 지원금 수십억...도약 발판
미흡한 인프라·낮은 기술력 개선을

본사나 공장을 광주로 옮긴 업체들이 수도권에 비해 최고 10분의 1에 불과한 부지 가격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전기업지원금 등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과거 수도권에 있을 때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면서 직원 복지시설을 늘려 이직률도 크게 낮추는 등 ‘광주 이전’이 도약의 발판이 된 셈이다.

다면 원자재의 물류 비용 증가와 협력업체 수 부족과 낮은 기술력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최근 본사나 공장 이전지로 광주를 선택한 3개 업체들의 이해득실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광주 이전을 “잘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선박엔진과 태양광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서울마린’은 지난 4월 6일 광주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준공했다. 15년 동안 서울시 고진구에서 한 자리를 지켰지만, 낮은 부지 가격과 두둑한 지원금은 물론 광주시가 태양광 산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새로 진출한 태양광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업체는 이전기업지원금으로 우

선 14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장 부지를 서울 고가 부지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하면서 나머지 비용을 설비투자비로 돌려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 선박엔진 생산라인과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 등 2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조만간 100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금형을 생산하는 ‘태광몰드베이스’는 지난해 말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장을 통째로 광주 평동산업 단지 내 금형산업단지로 옮겼다. 높은 부지가격을 유지하며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고 광주시가 금형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서울의 공장부지 1천m²를 팔아 6천m²의 부지를 구입했으며, 납은 금액으로 신규 설비에 투자했다. 낮은 부지에 각종 직원 복지·편의시설을 설치해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광주로 옮기면서 나타난 단한 가지 문제점은 금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서울보다 10~20%가 더 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업체인 ‘한국아와타’는

안전밸트 프레임 생산업체로 경기도 화성과 광주를 놓고 고민하다 지난해 9월 평동산업단지 내 외국인기업전용 단지에 안착했다. 부지 가격과 직원 고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주의 부지가격이 3분의 1 이상 싼 데

다, 안정적인 직원 고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불경 기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됐을 때 광주시로부터 이전기업지원금 3억5천만 원을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반면 도장·도금·열처리 등 관련 기

업들이 적고, 기술력도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120개 광주 이전기업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남구와 광주지방노동청, 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공동 주관으로 4일 남구청 회의실과 광장에서 ‘제 1회 광주 지역 사회복지분야 취업나눔 박람회’가 열렸다. 81개 업체에서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돌보는 일과 청소, 운전, 세탁 등

의 일을 하게될 213명을 모집하는 박람회에는 1천여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렸다. /위직령기자 jwki@kwangju.co.kr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수리

문성우 차장 직무대행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



졌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임 총장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안다”며 “임 총장의 이임식은 5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임 총장의 퇴임식이 대검찰청에서 개최되며 당분간 문성우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임 총장은 전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국민을 슬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표를 제출한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 전남 과학고는 졸업생 6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생 70명

중 69명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한 광주 과학고가 98.6%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계(인문계)에서는 광주 광덕고가 87.1%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 영흥고(87.1%), 광양제철고·대동고(86.8%), 서석고(85.5%), 여수 여천고(85%) 순이다.

광주 인문계고 45곳(졸업생 미배출 4곳 제외)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0% 미만인 학교는 광주고(66.7%)와 전대사대부고(67.3%), 전남여고(68.9%), 광주제일고(69.1%), 서강고(69.6%) 등 5개교로 조사됐다.

이 밖에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체 진학률에서는 광주 일반계 고교 중에선 정광고가 93.9%로 가장 높았으며, 동명고(91.9%), 중앙여고·송원여고(91.7%), 설월여고(91.6%), 서강고(91.5%) 순이다.

대학 진학률이 90%를 넘는 학교는

광주·전남 2008 4년제 대학 진학률

■ 광주	■ 전남				
순위	학교명	진학률	순위	학교명	진학률
1	광주과학고	98.6%	1	전남과학고	100%
2	광덕고	87.3%	2	영흥고	87.1%
3	대동고	86.8%	3	광양제철고	86.8%
4	서석고	85.5%	4	여천고	85%
5	고려고	83.7%	5	완도고	83.6%
6	송월고	82.7%	6	덕인고	82.8%
7	광주여고	82.6%	7	장성고	82.4%
8	금호고	82.2%	8	나산고	81.1%
9	통신고	82.1%	9	한영고	79.9%
10	설월여고	82.1%	10	목포고	79.4%
				순천고	

※ 졸업자 5명이하 고교는 제외

외국 대학에 진학한 광주 학생은 풍암고, 동신여고, 동성고, 대성여고, 광주고 등 6개교에서 각 1명 등 모두 14명이었다.

광주 지역 전문계 고교의 대학 전체 진학률은 자연과학과가 81.8%로 가장 높았으며 전산과 78.5%, 송의고 77.1%, 광주공고 72.5%, 동일전자경 68.9%, 전남여상 63%, 전남공고 60.5% 순이었다. 금파공고(44%)를 제외한 12곳의 대학 진학률이 50%를 넘었다.

학교정보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1일(2008년 4월 1일 기준)에 이어 두 번째다.

공시대상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 1만 1천 418개, 공시내용은 학생변동

사항과 교원현황,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등 10개 영역 28개 항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과학고, 4년제 대학률 1위

학교 정보 공개...일반계, 광주 광덕고-목포 영흥고 순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특

목고인 전남 과학고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7면〉

4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된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219개(광주 65, 전남 154개) 고교 중 전남 과학고의 2008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전남 과학고는 졸업생 60명 전원이

중 69명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한 광주 과학고가 98.6%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계(인문계)에서는 광주 광덕고가 87.1%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 영흥고(87.1%), 광양제철고·대동고(86.8%), 서석고(85.5%), 여수 여천고(85%) 순이다.

광주 인문계고 45곳(졸업생 미배

출 4곳 제외)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0% 미만인 학교는 광주고(66.7%)와 전대사대부고(67.3%), 전남여고(68.9%), 광주제일고(69.1%), 서강고(69.6%) 등 5개교로 조사됐다.

이 밖에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체 진학률에서는 광주 일반계 고교 중에선 정광고가 93.9%로 가장 높았으며, 동명고(91.9%), 중앙여고·송원여고(91.7%), 설월여고(91.6%), 서강고(91.5%) 순이다.

대학 진학률이 90%를 넘는 학교는

과학고를 비롯해 14곳으로 광주 지역 전체 인문계 45곳의 31%를 차지했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대학 전체 진

